

갤러리 색즉시공



<화순 운주사>

불이(不二)

언제부터 바위이고  
언제부터 부처였을까  
바위였던 부처  
부처였던 바위  
어디가 바위이고  
어디가 부처인가  
바위 깎으면 부처인 것을  
부처 부서져 바위인 것을

언제부터 나였고  
언제부터 너였을까  
나였던 너  
너였던 나  
어느 마음을 너라 하고  
어느 마음을 나라 할까  
나를 버리면 너인 것을  
너를 담으면 나인 것을

시인 · 글=박재완 기자

도반의 향기

자재화보살의 바라밀일기



나의 도반 대덕화

나에겐 대덕화라는 도반이 있습니다. 그는 법회가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절도 하고 묵언수행 중인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나는 그의 집중력에 놀라 가끔 그를 지켜보다가 어떤 책으로 기도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철야기도 중에 잠시 만나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이 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와 점심을 같이 하면서 오붓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기독교를 34년이나 믿었던 대덕화보살은 남편, 아들, 딸과 행복한 생활을 하던 중 다니던 교회에 회의를 느껴 성당에 나가볼까 했는데, 불교를 믿으셨던 시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려던 마음을 돌려 불교를 믿으면서 시택 어른들을 따라야겠다는 마음으로 봉은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수석을 했고 기술고시에 서도 수석을 하신 분으로 공직에 계셨는데, 갑자기 두 번씩이나 쓰러져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 힘든 상황에 또 다시 큰일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아래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상사인 거사님이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차츰 건강이 회복되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마음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

다. 그러던 중에 장학금 받으며 학교에 잘 다니던 아들이 갑자기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누워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하고, 병석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산에 묘가 다섯 개 있었는데 그 중 두 개의 묘가 마구 파헤쳐져 있고 산신각이 보이고 법당이 보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예삿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용하다는 데를 찾아 다녔는데 한 소리로 산소를 잘못 만져서 생긴 일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선산에 가보니까 이만하기가 다행이라고 그나마 보살의 기도 덕분이라 했습니다. 물론 남편 물래(알면 업 짓는 말을 해서 공덕이 없어질까 봐)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과 기도를 하고 와서 절에서 천도재를 지내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잘 나가던 애를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한 게 너무 가엾고 미안해서 월정사에 가서 울며 삼천배 삼일기도 후 봉은사에서, 집에서 이전배, 천

배를 계속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서 절을 할 때는 아들이 간접적으로라도 들으며 불교공부를 할 수 있게 법륜스님의 반야심경 테이프와 종범 스님 정락 스님 등 큰스님들의 법문을 다운받아 틀고 또 틀어서 아이를 공부시키면서 기도를 하는 중 또 꿈을 꾸었습니다. 산에는 세삭이 돌아오고 길이 보이는 꿈을 꾸고 나서 희망을 가지면서 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후 아이는 씻은 듯이 나아서 활기를 되찾아 온 전면허도 따고 웹플스테이에도 다녀오고, 법륜스님의 정토회에 나가 봉사 수행도 하고 바쁘신 아빠

“어려움 겪으며 살아보니까  
좋고 나쁜일 영원한게 없더군요”  
관음보살 님은 도반의 말입니다

회사에도 나가 회사일도 도우면서 공부해 졸업하고 그 동안 하고 싶었던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원에 갔습니다. 아이는 엄마 덕분이라고 늘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정신없이 기도하고 나서보니 아빠도 건강을 다시 찾았고 사업은 번창해 남들은 일거리가 없어 놓고 있는데 놀 사이 없이 바쁘게 돌아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수도 없이 한다고 합니다.

111일 기도라고 매일 오지 않지만 절에 올 때는 무

겁게 공양물을 들고 오는 정성. 집에는 보시함 통장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절에 오는 공양미를 따로 사놓고 한 그릇 푸면서 발원하고 또 푸면서 기도하며 가져 온답니다. 공양 올리는 모습도 정성이 가득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 인연 있는 절에도 가끔 들려 스님이 뭐가 힘든지 살펴보고 재보시 법보시를 소리 없이 한다고 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마음 너무나 닳고 싶습니다.

일찍 출근하지 않는 남편을 위해(집에 계신 부처님)점심까지 대접을 하고 집안일 한 후에 절에 오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도반.

“저는 일찍도 못 오고 매일 오지도 못해요. 집에서 정성껏 해요.”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기도하면 그곳이 마치 극락인 것 같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기는 법화경을 사경하고 거사님은 금강경을 사경하고 있습니다. 발원을 할 때도 자주 “해주십시오.” 하기가 송구스러워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한답니다.

저렇게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른 행을 하는데 불보살님 성현님들께서 무조건 다 들어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수도 없이 받은 가피를 쓰려면 책 한 권은 될 것 같습니다.

아빠께 바친 꽃바구니

과묵하신 학자타입의 아빠가 “너도 나 닮아서 감사하고, 고마움을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성격인 것 내가 알아, 그렇지만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모두 너의 엄마기도 덕분인 줄 알아야 한다.”

정말 아빠 성격을 닮아서인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잘 못하는 하나 밖에 없는 사랑스런 딸에게 아빠가 하는 말씀입니다. 아빠에게 그 얘기를 듣고도 아무 반응 없이 일상과 같이 생활

하던 예쁜 딸이 그해 마지막 날에 아주 큼직한 꽃바구니에 ‘아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고 쓴 리본을 붙여 아빠회사로 꽃바구니를 했더니 다. 속 깊은 딸은 엄마의 고마움과 엄마의 고마움을 알고 계신 아빠께도 감사함을 담아 표현했습니다.

사랑스런 딸의 깊은 마음을 받고 환한 아빠의 얼굴에 핀 함박웃음에서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거사님은 셋째 아드님으로 태어났지만 큰덕의 힘든 행편을 도와 두 조카 학비를 대 성공시켜 왔고 어머니가 계신 곳이라고 당신들은 전세 살면서도 큰 집을 사드렸습니다. 후배들 학비를 도와 주시는 등 많은 일들을 하시며 당신이 이생에서 값고 값 빛이 있다고 확실하게 값고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남편에 그부인인 것 같습니다.

초하루 차레를 지내고 친척들이 다가고 난 후에는 가족모두가 보리암으로 부처님께 인사드리러 간답니다. 오는 길에 이 절 저 절에 들려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오는 것이 습관이 되었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와서 제일 잘 한 일은 부처님 만난 것과 호남인 남편 만난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신기하고 감사하고 제일 큰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얼굴에 핀 행복의 꽃이 고와보입니다.

“어려움 겪으며 살아보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한 게 없더라고요. 좋아도 담담하게 살아가는 저에게 엄마의 내용이 대단하다고 아들이 칭찬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요.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의 얼굴 위에 청아하고 자비스러운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 겹쳐보였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이생에서 갈 길 열심히 닦으며 같이 살아가자고 하네요. 이런 도반이 제게 생겼다는 것이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제게 전해옵니다.

불교종합쇼핑몰

붓다북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

